

시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김 창 대

(안양대학교 교수 / 구약학 / 설교)

■ 초 록 ■

본 연구는 시편 해석의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서 시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을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시편 해석은 시편 전체가 통일성을 가진 책으로 배열되었다는 새로운 인식 속에서 시편을 연구한다. 개개의 시편들은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최종 완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시편의 최종 형태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다윗왕권의 붕괴와 맞물려 전개된다. 하지만 다윗왕권의 붕괴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강조로 인해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희망과 다윗왕권의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편 5권까 끝난다.

이와 같은 통일성이 있는 책으로서의 시편에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혹자는 하나님의 왕권, 시온, 율법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필자는 본 논문에서 그 핵심 메시지를 마음의 변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편은 마음에 율법에 새기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독자들에게 교훈한다. 이와 같은 시편 해석 속에서 필자는 시편도 새

로운 경향에 맞추어 설교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시편 설교를 위한 단계들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첫 번째 단계는 한 개의 시편을 선택하고, 그 시편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 분석은 개개의 시편의 중심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설교자는 시편 안에서 설교 대지를 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설교 대지 상호간의 의미론적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설교 대지와 관련된 신학적 주제들이 어떻게 주위 시에서 발견되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설교 대지의 내용을 풍성화하게 해 줄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설교 대지와 관련해서 그것들이 전체 시편의 시각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즉 마음의 변화와 관련해서 설교할 내용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편 설교 단계에 대한 설명이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시편 8편, 23편, 그리고 97편을 선택하여 실제 설교의 예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시편, 통일성, 설교, 방법론, 마음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구약보다는 신약을 선호한다. 그 만큼 신약의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설교자에게 장황하고 난해하게 보이는 구약보다 신약의 구원의 메시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날 강단에서 구약의 본문은 천대를 받는 실정이다. 구약에서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귀에 친숙한 모세오경이나 역사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것도 신약의 메시지를 위한 증거본문(proof-text), 또는 예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가서의 설교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시편의 경우 새벽기도에서 설교자들이 애용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을 읽어주고 피상적으로 선포에 그친다. 시편의 말씀은 주로 탄식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새벽기도에 찾아 온 사람에게 안정 맞춤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유용성도 시편이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시편 설교의 아쉬움이 있다. 시편 설교의 경우 설교자가 본문에 대한 주의 깊은 주석이 곁여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본문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주석적 작업을 위해 주석서를 참조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시편의 경우는 본문의 특성이 인생의 경험을 다룬다는 생각에 설교자가 자신의 인생적 경험을 시편 본문에 대입시켜, 시편을 설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석가이든 설교가이든 본문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항상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불문율이다.¹⁾

본인은 이 논문에서 시편을 설교하기 위해 설교자가 유념해야 될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할 것이다. 특별히 시편 해석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고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맞춰 어떻게 시편을 설교해야 할지 그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II. 시편 해석의 새로운 경향

시편 해석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기 전에 시편 해석의 기존 경향들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²⁾ 1900년 이전에 시편 연구는 역사비평이 주류를 이루어 시편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역사적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연구는 실제 설교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시편의 장르와 각각의 장르(Gattung) 배후에 있는 종교-사회학적 상황(Sitz

1) Duane A. Garrett, "Preaching from the Psalms and Proverbs," in *Preaching the Old Testament*, ed. Scott M. Gibson, (Grand Rapids, Mich.: Baker, 2006), 101.

2) 시편 연구의 기존의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D. M. Howard, Jr., "Recent Trends in Psalms Study," in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es*, ed. D. W. Baker/B. T. Arnold, (Grand Rapids, Mich.: Baker, 1999), 329-368; idem, "Editorial Activity in the Psalter: A State-of-the-Field Survey,"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linton McCann, JSOTSup 1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52-70; James L. Mays, *Preaching and Teaching the Psalms*, (Louisville, Kentucky: WJK, 2006), 31-40.

im Leben)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학자가 쿤겔이다. 쿤겔 이후로 시편 연구는 특별히 장르를 구별하고 시편을 여러 장르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다.³⁾ 쿤겔은 시편의 장르를 크게 6가지로 분류했다. 찬양시,⁴⁾ 집단적 탄식시(예를 들면 44편), 개인적 탄식시(13편), 감사시(30편), 제왕시(2편), 그리고 지혜시(37편)이다. 이런 장르 외에도 오늘날 회상시(78편), 저주시(137편) 등이 추가되어 더욱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쿤겔의 양식비평은 각각의 양식(장르)은 제의적 상황을 반영하는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양식비평은 시편 해석에서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양식이라고 해도 꼭 동일한 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탄식시의 경우 시에 따라 그 구조의 흐름이 다를 수 있다.⁵⁾ 더욱이 양식비평적 해석은 시편 설교에서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⁶⁾ 무엇보다도 개개의 시의 특성을 회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편 해석에서 양식비평은 중요한 도구임은 부인할 수 없다.

양식비평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오늘날 시편 해석은 새로운 경향을 맞이하고 있다. 그 시발점으로 새로운 경향을 개척한 사람이 윌슨(G. H. Wilson)이다, 그는 1985년에 공식적인 관점에서 주위의 시들의 문맥에서 시를 보려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⁷⁾ 그의 영향 아래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의 시각이 아니라 정경으로서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3) H. Gunkel, *Die Psalmen*, 4th ed., Göttinger Hand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4) 찬양시는 다시 세 범주로 세분화된다. 즉 축제에 사용된 찬양시(100편), 야훼 등극시(47편), 그리고 시온시(48편)이다.

5) 일반적으로 탄식시는 끝에서 찬양으로 끝맺는 구조를 갖는데, 어느 시에는 찬양이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시 88편의 경우처럼 찬양부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편 해석에서 양식비평의 한계점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Mays, *Preaching and Teaching the Psalms*, 35.

6) Garrett, "Preaching from the Psalms and Proverbs," in *Preaching the Old Testament*, 113.

7) G. H. Wilson,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ago: Scholars Press, 1985). 시편 연구의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박사과정 논문을 참조하라. So-Ra Kang, "Reading Book 1 of the Psalter through the פְּשָׁמִים Sayings,"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26-62.

통일된 책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시편의 해석 작업은 개개의 시들의 장르를 고려하면서도 최종 배열자가 시편의 시들을 일관성을 가진 통일적 메시지를 갖도록 한 배열 작업에 주목한다. 한 예로 매칸은 시편이 5권이 묶여졌고,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언급한 것은 시편 전체가 모세오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보았다.⁸⁾

물론 시편 전체가 하나의 통일적 메시지를 가진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개개의 시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세밀하게 배열되었다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⁹⁾ 하지만 하워드(David Howard)는 시편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일적 메시지를 가지면서 동시에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개개의 시들이 주변 시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도록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다고 주장한다.¹⁰⁾ 하워드는 시편을 주위 시들과 함께 읽는 해석은 정당한 작업이며 이는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있었던 해석 방법이라고 역설한다.¹¹⁾

III. 시편의 배열 구조

1. 학자들의 견해

시편이 하나의 책으로서 통일적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시편 설교에 놀라운 빛을 던져준다. 이렇게 되면 시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설교는 개개의 시뿐만 아니라 주위의 시와 그리고 시편 전체의 관점에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편의 통일성은 시편 안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신학적 주제가 있

8) J. 클린톤 매칸/ 김영일 옮김, 『새로운 시편여행』 (서울: 은성, 2000), 23

9)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와이브레이(Whybray)이다. R. N. Whybray,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99

10) David M. Howard, Jr.,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Biblical and Judaic Studies* 5,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7).

11) David M. Howard, Jr., "The Psalms and Current Study,"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ed.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5), 28-29.

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길링햄(S. Gillingham)은 시편 전체의 통일적 메시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시편의 최종 배열이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종말론적 목적을 주장하는 입장과 도덕적인 교훈이 주목적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고 말한다.¹²⁾ 이런 이중적 입장은 시편 1-2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압축된다. 시편 1-2편은 표제가 없다. 이 시들의 저작자는 시편의 최종 배열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 배열자의 시가 시편 앞에 놓여진 것은 이 두 개의 시편이 시편 전체의 해석적 열쇠가 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이다.¹³⁾ 시편 1편의 서두와 시편 2편의 말미에 복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인클루지오를 이룬다. 또한 이 두시는 서로 어휘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1:2/2:11(즐거워함), 1:2/2:1(חַיִּים),¹⁴⁾ 1:6/2:12(길, 망함), 1:2/2:1(묵상, 경영)절).

윌슨(Wilson)은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즉 2편은 제왕시로서 1-3권의 서론이라면 1편은 1-3권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4-5권의 지혜시의 틀을 대변해 주고 시편 전체를 지혜의 관점에서 읽으라는 해석적 가이드라고 생각했다. 그는 1편과 2편이 비록 어휘적으로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서로 묶어서 함께 읽을 것을 반대했다.¹⁵⁾ 윌슨(Wilson)은 1-2편이 하나의 시로 연결되었다는 주장(redactional unity)을 인정하지 않는다.¹⁶⁾ 그는 시편 1편과 2편을 분리하고 시편 1편만이 최종 형태로서 시편의 신학을 보여준다고

12) S. Gillingham,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in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Proceedings of the Oxford Old Testament Seminar*, ed. J. Day, (New York: T&T Clark, 2005), 308-309.

13) Patrick D. Mille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 McCann, 88.

14) 시 1:2에서 חַיִּים는 "묵상하다"라고 번역되었고, 2:1절에서는 "경영하다"라고 번역되었다.

15) John T. Willis, "Psalm 1 - An Entity," *ZAW* 9 (1979), 381-401.

16)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Roland E. Murphy, "Reflections on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linton McCann, (Sheffield: JSOT Press, 1993), 22-23; Gerald T. Sheppard, *Wisdom as a Hermeneutical Construct: A Study in the Sapientializing of the Old Testament*, (BZAW 151; Berlin: de Gruyter, 1980), 136-144.

주장했다. 그리고 그 신학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강조다. 인간적인 왕을 의지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늘날 시편 1-2편은 시편의 서론으로 함께 읽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학자가 매칸이다. 그는 시편 1-2편이 하나로 묶어진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에 순종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이러한 매칸의 견해는 시편 1-2편에서 1편의 신학적 주제에 더 많이 치중한다는 인상을 준다. 반면 길링햄(S. Gillingham)은 시편의 최종 완성은 시온 사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시온에 다시 돌아오실 것을 강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¹⁸⁾ 그녀의 견해는 시온을 언급하는 시편 2편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준다.

혹자는 시편 1편과 2편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2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왕은 의인의 모델로 해석되도록 의도되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밀러에 의하면 시편 1편에 2편이 합치되면서 1-2편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편의 시들 속에서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¹⁹⁾ 비슷하게 이튼(J. H. Eaton)은 시편 1편과 2편이 같이 있음으로써 시들을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다.²⁰⁾ 이것은 거꾸로 시편 1편이 2편 앞에 놓이게 됨으로써 모든 의인이 왕이라는 암시를 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일종의 민주화인 셈이다.²¹⁾ 실제로 시편 8편은 시편 1,2편에 근거하여 의인을 왕과 같은 위치에서 올려놓는다. 그리고 시편 37편은 의인을 시편 2편에 왕에 해당되는 용어로 묘사하고 있다.²²⁾

17) McCann,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45.

18) Gillingham,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334. 이에 반해 Zenger는 시편 전체는 성전 예배와 상관없이 영적인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해한다. Erich Zenger,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45," *JSTOT* 80 (1998), 77-102.

19) Mille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88.

20) J. H. Eaton, *Kingship and the Psalms*, SBT 32, (London: SCM, 1976).

21) Miller, "The Beginning," 91. 또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Jamie A. Grant, "The Psalms and the King,"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ed.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5), 110.

22) 예를 들면 시편 37:13에서 의인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인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

시편 전체에서 다윗왕권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는 견해는 시편 전체가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의 관점에서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윗왕권이 파괴된 포로후기 상황에서 최종 완성된 시편에서 왕에 대한 암시는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³⁾ 하지만 시편의 메시아적 해석은 신증을 요한다. 이와 같은 해석적 접근은 자칫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시각에서 환원해서 해석하는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편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패턴으로 기능한다(시 22편; 69:4, 9 등).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에서 등장하는 인간적 고난과 탄식을 자신의 고난과 대입시켜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자로 제시할 뿐, 시편의 모든 고난과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탄식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²⁴⁾

2. 시편의 중심 메시지: 마음의 변화

이상에서 우리는 시편의 신학적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 또는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 등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학자들의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다. 필자의 견해는 시편 1편과 2편은 각각 율법과 시온이 핵심단어로 등장하기 때문에(1:2; 2:6), 시편 전체는 율법과 시온의 관점에서 읽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시온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계신다. 그리고 이 시온은 피난처이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는 신학적 주제가 시편 전체의 신학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시온과 율법의 관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시편 1권에서 시편 15-24편은 초두와 말미에 시온이라는 주제가 있고, 가운데에 19편은 토라시가 자리잡은 동심원구조를 이룬다.²⁵⁾

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라는 말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시편 2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시 2:4).

23) D. C. Mitchell,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87.

24) Grand, "The Psalms and the King," 117.

25) P. Auffret, *La sagesse a bâti sa maison*, OBO 49, (Göttingen: Vandenhoeck &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시온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임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시편 2권에서 46-48편은 하나의 시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제시되어 율법 준수의 필요성을 암시한다(시 48:9-11).²⁶⁾ 시편 4권은 모세의 틀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등극시인 93-100편은 시온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암시한다(시 99:7 참조).²⁷⁾ 같은 맥락에서 크셀만(John S. Kselman)에 의하면 시 93:5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시편 93편은 시온이 시내산을 대체하는 곳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한다.²⁸⁾

마지막으로 시편 5권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온 순례시(시편 120-134편)가 있다. 시편 5권에서 시온 순례시가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들이 토라시인 시편 119편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논의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⁹⁾ 시 119편은 시편 5권의 핵심적 위치에 있고, 그 시가 시편의 최종 완성 과정에서 시온 순례시와 함께 배열되었다는 것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토라에 대한 인간적인 순종을 함께 동반해야 한다는 시편 전체의 시온 사상을 보여준다.

율법을 동반한 시온 사상이 신학적 핵심이라는 주장은 약간 막연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는 좀 더 그 폭을 좁힌다면 시편

Ruprecht, 1982), 407-438.

26) 시편 46-48편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32집 (2009/6), 63-82.

27) Gerald H. Wilson,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 McCan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76.

28) Cf. John S. Kselman, “Sinai and Zion in Psalm 93,” in *David and Zion: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J. J. M. Roberts*, ed. B. F. Batto/K. L. Roberts,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4), 75.

29) Patrick D. Miller는 시편 119편은 최종 완성된 시편의 관점으로 볼 때 시편 5권의 핵심이라고 이해한다. Patrick D. Miller, “Deuteronomy and Psalms: Evoking a Biblical Conversation,” *JBL* 118 (1999), 11.

에서 구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시편에서 강조하는 율법의 순종은 형식적인 순종은 아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중요한 단어이며 이 단어는 시편의 주요 길목에서 발견된다. 즉 각권의 끝이나 초두에서 마음의 단어를 찾을 수 있다(시 73편, 90편, 108편, 141편). 이것은 시편에서 마음에 대한 강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시편의 해석적 가이드인 시편 1편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함의 의미는 시 40:8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구절에서 “기뻐하다”(צָבַח)와 “율법”(תּוֹרָ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 1:2에서 “율법”과 “기뻐하다”라는 말과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시 40:8은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1권을 위해 인클루지오 구조를 형성한다. 시 40:8의 관점에서 시 1:2에서 “율법을 묵상하다”라는 말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⁰⁾ 이렇게 해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가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시편에서 탄식은 어느 한편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기 못했기 때문임을 제시한다. 이런 신학을 더욱 더 잘 보여주는 시가 시편 37편과 73편이다.³¹⁾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도다”(시 37:3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시 73:1-2)

여기서 두 시의 공통점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두 시는 공통적으로 미끄러운 길을 언급한다. 시편 26편은 의인의 길과 성품(26:3-4, 12)을 다루는데, 특별히 26:11에서 시인은 자신의 발

30) 뱅케메른은 시편 1:2에서 묵상을 잠 3:1-6에 근거해서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모습으로 이해한다. VanGemeren, "Psalms,"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5, ed. Frank E. Gaebelin,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1), 55.

31) 특별히 시편 73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등장한다. James L. Crenshaw, *The Psalm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1), 115-117.

이 평탄한 데에 있다고 말한다. 평탄한 곳과 대비되는 곳이 바로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미끄러운 곳이다. 의인은 미끄러운 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37:31). 반면 악인은 험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끄러운 길에 있기 때문에 줄지에 황폐하게 된다(73:18). 이렇게 해서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 준다. 신약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하고 있지만 시편은 평탄한 길과 미끄러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73편의 시인도 자신이 실족할 뻔 했다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73편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실족할 뻔 했던 시인이 미끄러지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시인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그리고 73편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우매한 짐승의 것으로 비유하고(73:22), 다시 마음을 바로잡는다. 하지만 이후에 시편 3권의 흐름은 다시 탄식조로 흐르고 시편 88-89편은 시편에서 가장 암울한 부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응답이 시편 4권이다. 시편 4권을 시작하는 시편 90편은 다시 마음을 강조한다.³²⁾ 여기서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90:12). 하나님 앞에서 천년은 한 경점에 불과하고 인간은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존재임을 시인은 목도하다(90:4-6).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편 4권의 등극시(93-100편) 후에 시편 101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한 이후에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새롭게 다짐한다(101:2).

이렇게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했지만 이어서 나오는 시편 102편은 다시 탄식시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103편은 매우 의미 있다. 여기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고한다. 주를 경외한

32) 콜(Cole)은 시편 73-89편의 해석에서 시편 90편은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Robert L. Cole, *The Shape and Message of Book III*, (Psalms 73-89), JSOTSup 3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4.

다는 말은 시 86:11에서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어서 시편 104-106편은 창조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회상하고 광야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행동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³³⁾

다음으로 나오는 시편 5권은 포로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이 5권 초두와 말미에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다(108:1; 138:1; 141:4). 특별히 5권의 핵심인 시편 119편은 율법과 마음이 빈번히 병치되어 등장한다(119:11, 34, 97, 113 등). 그래서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교훈한다. 시편 5권의 결론인 시편 145편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고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145:20). 이렇게 해서 시편 1편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다시 연상시킨다.

IV. 시편 설교를 위한 단계들

앞에서 우리는 시편의 배열 구조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이 흐름은 다윗왕권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편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길 것을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비록 다윗왕권의 붕괴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과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온에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와 함께 통치하실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 이후에 시편 후반부는 찬양이 주류를 이룬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내러티브로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찰은

33) 한편 린제이 윌슨(Lindsay Wilson)은 시편 103-106편은 시편 4권의 결론으로서 앞에 하나님의 왕권(93-100편)이 구체적으로 창조와 구원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Lindsay Wilson, "On Psalms 103-106 as a Closure to Book IV of the Psalter,"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ed. Erich Zenger, (Leuven, Belgium: Uitgeverij Peeters, 2010), 755-766.

시편 설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개의 시편을 설교할 때 전체 중심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도록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시편 해석의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서 시편을 설교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단계들을 이론적으로 살피겠다.

첫 번째 단계는 설교자가 시편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시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다. 구조의 파악은 메시지의 내용의 흐름을 결정한다.³⁴⁾ 시편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조로 동심원구조(A-B-C-(D)-C'-B'-A')와 패널구조(A-B-C-A'-B'-C')가 있다. 동심원 조는 메시지의 중심이 가운데에 있다는 신호이다. 일반적으로 동심원구조에서 핵심은 그 구조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이다.³⁵⁾ 동심원 구조에 대표적인 시는 시편 1편이다. 시편 1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³⁶⁾

- A.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길(1절)
- B.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2절)
- C. 의인은 나무와 같음(3절)
- C'. 악인은 겨와 같음(4절)
- B'. 악인은 심판 앞에서 고통을 당함(5절)
- A'.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길(6절).

이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시편 1편의 핵심은 C/C'로서 식물 이미지를 통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시편 1편의 전체를 해석하라는 해석적 열쇠를 제공한다. 그리고 의인의 율법 묵상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패널구조는 평행을 이루는 앞의 평행구가 뒤에 나오는 평행구에 의해 더욱 발전(progression)되는 효과를 가진다.³⁷⁾ 시편 47편은 이런 패널구조에 속한다.³⁸⁾

34) Garrett, "Preaching from the Psalms and Proverbs," 101.

35) David Noel Freedman, "Preface," in *Chiasmus in Antiquity: Structures, Analyses, Exegesis*, ed. John W. Welch, (Hildesheim, Ger.: Gerstenberg Verlag, 1981), 7.

36) V. Philips Long, "Reading the Old Testament as Literature," in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 A Guide for Exegesis*, ed. Craig C. Broyles, (Grand Rapids, Mich: Baker, 2001), 120.

- A. 하나님을 향한 찬양(1절)
- B. 여호와가 왕이심(2절)
- C.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을 다스리게 함(3-4절)
- D.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감(5절)
- A'. 하나님을 향한 찬양(6절)
- B'.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7-8절)
- C'.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9a절)
- D'. 하나님이 높이 올려지심(9b절)

이와 같은 구조에서 볼 때, 시편 47편의 핵심은 D/D'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높아지심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왕이시기에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편의 구조에 대한 발견은 설교자로 하여금 단락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함을 준다.³⁹⁾ 그렇게 해서 설교자는 단락 별로 설교 대지를 정할 수 있다. 단락별로 대지를 나눌 때 시편 1편의 경우 A/A', B/B', 그리고 C/C'와 같이 서로 평행을 이루는 단락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설교 대지를 정할 수도 있다. 일단 단락을 정하고 대지들을 선정하면 대지와 관련된 신학적 주제들이 어떻게 한 시편 안에서 의미론적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시편이 통일성을 갖도록 배열되었다는 전제 속에서 주위의 시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교 본문으로 정한 시편의 내용 중에서 설교자가 발견한 설교 대지와 관련된 신학적 주제가 주위 문맥에 있는 시들, 또는 해당 시편이 속해 있는 권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발전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편 37편에서 두드러진 신학적 주제(대지) 중에 하나는 복과 관련해서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주제이다(시 37:13). 그런데 시편 37

37) Bruce K. Waltke,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7), 119.

38)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73.

39) Garrett, “Preaching from the Psalms and Proverbs,” 102

편의 주위에 시선을 돌리면 땅과 복이라는 주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25:13; 32:1; 34:12; 35:20).⁴⁰⁾ 앞에서 우리는 시편 1-2편은 시편 전체의 해석적 열쇠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시편 1편과 2편은 각각 지혜시와 제왕시이기에 시편 37편의 땅의 주제가 특별히 주위의 지혜시와 제왕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시 37편에서 땅의 주제는 1권 안에 제왕시인 21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21:10).⁴¹⁾ 어떤 경우는 시편 안에 있는 권의 경계를 초월해서 서로 연결시켜야 할 경우도 있다. 시편 3권의 시들이 그러하다. 시편 3권의 시들인 주로 탄식인데, 이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묶어진 시들이 바로 시편 4권이기 때문이다.⁴²⁾ 그래서 시편 3권은 시편 4권의 문맥에서 읽혀져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본문을 토대로 정해진 대지와 관련된 신학적 주제들이 전체 시편의 관점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마음에 율법을 새기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⁴³⁾ 그러므로 본문에서 드러난 주제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편 46편은 시온을 우리의 피난처로 묘사하고 거기서 왕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다. 하지만 시편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된다. 시온은 아무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시편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사람만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4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라. Changdae Kim, "The Blessing of Inheriting the Earth in Psalm 37: Its Theological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 Psalter," *Scripture and Interpretation* 1/2 (2007), 95-110. 실로 37편은 시편 1권 안에서 주위의 시들과 많은 유비점들을 가지고 있다. 37:11/35:20(땅과 화평), 37:27/34:14(악에서 떠남), 37:14/35:10(가난하고 궁핍한자), 37:6/36:9/37:10(광명, 빛), 37:31/36:1(마음), 37:11/27:4,13(땅). 37:31/35:8(실족함)

41) *Ibid.*, 105-107.

4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라. Changdae Kim, "The Problem of Theodicy in Psalm 89 and Its Resolution in Books III and IV,"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54 (2007), 5-27.

43) 시편에서 마음의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9편이다. J. Ross Wagner, "From the Heavens to the Heart: The Dynamics of Psalm 19 as Prayer,"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1 (1999), 245-261.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점은 시 24:3-5에서 시온에 오를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강조에서 더욱 지지를 얻는다.⁴⁴⁾

마지막으로 이상의 석의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풍성한 통찰력을 시편의 이미지와 맞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시편은 운문으로서 여러 가지 수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⁵⁾ 특별히 빈번한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서 시편은 독자들에게 논리적인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설교자는 청중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엄선된 언어를 가지고 청중의 상황에 맞게 석의된 말씀들을 적용해야 한다.

이상의 시편 설교 준비를 위한 세 가지 단계는 시편 전체가 통일성을 가진 책이라는 전제 속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관찰하고 거기서 구조를 분석하고 설교 대지를 정하고 각각의 설교 대지와 관련된 신학적 주제들이 어떻게 한 시편의 본문 안에서 주제적 네트워크를 이루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각각의 주제들이 주위 문맥과 더 나아가서 시편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신학적 대지들은 설교를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제시된 단계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설교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하나의 시편에 집중해서 거기서 도출된 주제들을 설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제시된 시편 설교 단계들은 시편의 메시지를 더욱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설교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V. 시편 설교를 위한 예들

44) 테린(Terrien)은 시 24:3에서 청결한 마음은 제의법 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 이상을 준수하는 고귀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Samuel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3), 247.

45) 롱만은 시의 특징은 간결성, 빈번한 평행법의 사용, 그리고 이미지의 활용이라고 말한다. Tremper Longman III, "Literary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 in *A Guide to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ed. Willem A. VanGemeren,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9), 116.

이상의 시편 설교 단계들을 기초로 해서 실제 시편 설교가 어떻게 일관되게 진행되는지를 위해 시편 8편, 23편, 그리고 97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시편 8편

먼저 시편 8편의 구조를 살펴보자. 시편 8편은 동심원 구조(chiastic structure)로 이루어져 있다.

- A.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1a절)
- B. 하늘로 대변되는 창조세계가 주의 영광을 드러냄(1b절)
- C. 어린아이로 대적자를 잠잠케 함(2절)
- D.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연을 봄(3절)
 - E. 사람이 무엇이관대 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심(4-5절)
 - D'.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으로 다스리게 함(6a)
 - C'. 만물을 사람의 발에 두심(6a)
 - B'. 지상에 있는 창조세계(7-8)
- A'.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9절)

이와 같은 구조에서 볼 때 이 시의 신학적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이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왕으로 세우진 인간의 위상을 하나님의 왕권과 섭리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설교 대지를 얻을 수 있다: (1) 만물의 창조자이자 왕이신 하나님, (2)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심, 그리고 (3)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려 대적자를 물리치게 함.

두 번째 설교 대지와 관련해서 연약한 사람의 묘사는 2절의 어린아이로 비유된다.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입에 권능을 주셨다고 말한다. 본문의 문맥의 관점에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어린아이가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1절과 8절에 제시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찢먹이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자신의 부모를 부르는 일일 것이다.⁴⁶⁾ 여기서 설교자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권능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적 진리를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 설교 대지와 관련된 주제의 경우 대적자에 대한 언급은 주위의 문맥에서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진술과 함께 읽혀져야 한다. 결국 8편의 기능은 의인을 왕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물로 그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적자들 앞에서 탄식하지 말고 이 길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7, 8, 9편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 7:17에서 “주의 이름에 대한 찬양”은 시 8편에서 계속 이어지고 시 9:2에서도 등장한다. 이렇게 해서 시편 8편은 시편 7편과 9편에서 다윗이 약속한 찬양을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⁴⁷⁾ 대체적으로 시편 3-14편은 고난이 큰 주제이다.⁴⁸⁾ 이런 상황에서 시편 8편은 그 가운데 위치하여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임을 환기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주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인간의 왕이라는 대지를 이와 같은 주위 문맥과 연결시켜 청중들에게 더욱 설득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시편 8편의 내용이 어떻게 시편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설교자는 두 번째 대지와 관련된 신학적 주제를 마음의 문체와 함께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46) 마 21:16에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70인경(LXX)을 인용하여 “어린 아기와 찢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맛소라 사본의 “권능”과 “찬미”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문맥을 통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이라는 것은 찬미이다. 그런 찬미를 통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과 신실하심과 자비를 노래할 때에 비록 어린 아이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인간이라고 하라지라도 찬양을 통해 권능을 얻고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70인경을 인용하시면서 시 8:2의 권능을 찬양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원래 시편 8편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 경우이다(fuller sense)(마 21:16).

47) Mays, *Preaching and Teaching the Psalms*, 38.

48) 시편 3-14편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Friedhelm Hartenstein, "Schaffe mir Recht, JHWH!" (Psalm 7,9), *Zum Theologischen und Anthropologischen Profil der Teilkomposition Psalm 3-14*,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ed. Erich Zenger,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229-258.

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깊게 새기고 의지해야 한다고 설교할 수 있다. 마음으로 의지한다는 주제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시편 9편에서 다시 강조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시 9:10).

2. 시편 23편

이 시의 구조는 동심원구조와 패널구조가 혼용된 경우이다.

- A. 여호와와 나의 목자(1a절)
- B. 여호와와 **공급하심**: 내가 부족함이 없음(1b절)
 - C. 여호와와 **인도하심**: 설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2-3절)
 - D. 여호와와 **적극적 손길**: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심**(4절)
 - C'. 여호와와 **인도하심**: 원수 앞에 베푸신 상으로 인도(5a절)
 - D'. 여호와와 **적극적 손길**: 머리에 기름을 발라 **치유하심**(5b절)
- B'. 여호와와 **공급하심**: 내 잔이 넘침(5c절)
- A'. 목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반응(6절)

이 구조에서 핵심은 D/D'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여호와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보호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상처를 입을 때 치유하시는 분이 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할 수 있다.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일관되다가 갑자기 결론부분에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그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처럼 보인다. 혹자는 후반부 이미지는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여 상을 베푸는 초청(invitation) 이미지이기에 목자 이미지와 차별화된다고 주장한다.⁴⁹⁾ 하지만 사무엘 테린(Samuel Terrien)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미지는 여전히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⁵⁰⁾ 그에 의하면 목자는 양에게 풀을 먹이

49) Garrett, "Preaching from the Psalms," 111-112.

50) Samuel Terrien, *The Elusive Presence: Toward a New Biblical Theology*, (New

기 위해 전날에 머리 지역을 답사하고, 다음 날 답사한 지역으로 인도한 후에는 해로운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서서 지킨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는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장면은 목자가 일몰 시에 양들을 우리에게 가둘 때, 상처 부위, 특별히 빨로 인해서 쉽게 상하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는 장면과 연결된다.⁵¹⁾ 그래서 이 부분은 목자가 양을 치유하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섯 가지 설교 대지를 뽑을 수 있다: (1) 여호와와 공급자, (2) 여호와와 인도자, (3) 여호와와 보호자, (4) 여호와와 치료자, 그리고 (5) 목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와 같은 설교 대지들은 또한 매우 의미있는 일관된 의미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일관된 의미를 추적하면 먼저 목자이신 여호와(A)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데(B/B') 그 이유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C/C').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함은 원수가 있는 곳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 있다. 이 때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D), 더 나아가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이다(D'). 이 때 우리의 반응은 목자이신 여호와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와의 집, 즉 여호와와의 임계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다(A').

설교자는 이와 같은 설교 대지들을 주위 시의 문맥과 연결시켜야 한다. 시편 22편은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시인의 모습을 그린다. 이 때 23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서 24편은 그 이유가 여호와가 목자이시면서 왕이시기 때문임을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맥의 관점에서 설교자는 여호와와 보호하심이라는 대지에서 목자이자 왕이신 여호와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청중에게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시편 전체의 시각에서 여호와로부터 이와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양이 목자로부터 보호, 인도, 공급,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목자를 따라야 한다. 양은 우둔하지만 그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순종한다는 장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York: Harper & Row, 1978), 334.

51) 우리는 누가복음의 강도를 구해 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볼 수 있다(눅 10:34).

터 오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전인적 자세가 요구된다. 시 23:6에서 “여호와의 집”에 대한 언급은 목자이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축복은 주님과 그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주님의 임재의 교제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집(시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시편 24편이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시온에 오를 수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편의 전체 시각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설교자는 주위의 문맥과 연결시켜 설교 대지를 풍성화할 수 있다.

3. 시편 97편

이 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⁵²⁾

- A.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라(1절)
- B. 자연세계에서 여호와의 통치: 의와 공의(2-6절)
- C.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여호와(7절)
- D. 여호와의 공의로 시온이 기뻐함(8절)
- C'.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여호와(9절)
- B'. 역사 안에서 여호와의 통치: 마음이 정직한 자/의인을 구원(10-11절)
- A'.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라(12절)

이와 같은 구조에서 볼 때 이 시는 시온에서 임재하시는 여호와는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호와의 공의와 의는 자연세계의 통치 원리이면서 동시에 역사 안에서 여호와의 통치하심의 원리이기도 하다. 시온은 여호와가 임재 속에서 통치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이다. 여기서

52) 한편 호스펠트와 쟁거는 97편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1-6절은 신현, 7-9절은 신현의 결과, 10-12절은 현재의 적용이다. Frank-Lothar Hossfeld and Erich Zenger, *Psalms 2,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5), 470.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설교 대지를 정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창조원리는 공의와 의, (2) 시온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와 의로 다스림, 그리고 (3)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직해야 함.

주위의 문맥에서 볼 때 시편 97편은 다음과 같이 시편 95-99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A. 95편--여호와께 경배(6절), 출애굽의 광야 모티프
- B. 96편--새 노래로 찬양(1절), 하늘과 바다여 외쳐라(11절), 세계를 판단(13절)
- C. 97편--의와 공의가 그 보좌(2절)
- B'. 98편--새 노래로 찬양(1절), 바다여 외쳐라(7절), 세계를 판단(9절)
- A'. 99편--여호와께 경배(5절), 출애굽 광야 모티프

이런 점에서 97편은 95-99편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번째 설교 대지이다. 시온의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95-99편의 문맥에서 찾을 수 있다. 특별히 95편은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강박하게 한 사건을 지적한다(시 95:8). 이런 문맥에서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교훈과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이 본문에서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창조의 원리인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시온에 초대해서 시온의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설교할 수 있다. 주위의 문맥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이기도 하다(95:6; 99:5, 9).

앞에서 우리는 시편 4권은 시편 3권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편 3-4권의 문맥에서 시편 97편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말씀으로 설교자는 선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시온의 임재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

VI. 나가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시편 해석의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서 시편에 대한 새로운 설교방법을 제시했다. 시편의 개개의 시 안에도 풍성한 설교 대지들을 발견하고 설교할 수 있다. 하지만 시편은 개개의 시들의 단순한 묶음이 아니라 주위의 시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배열된 통일성을 가진 시들이다. 이런 점에서 주위의 시들의 문맥에서 시의 신학적 주제들을 음미하고 설교하는 것은 정당한 작업이다. 그렇다고 이상의 시편 설교 방법이 시편 설교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설교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청중들의 색깔과 상황에 따라 설교자는 자유롭게 시편 설교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본 논문에서 제시된 설교 방법 단계들은 시편 설교의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시들을 주위의 시들과의 관계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 시편 개개의 시도 분석하기 힘이 드는 상황에서 다른 시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설교자가 본문에 대한 세밀한 주석작업을 통해서 설교 대지를 정하고 그 대지의 의미를 주위 문맥에서 더 깊게 파헤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 참고문헌 ■

-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32집 (2009/6), 63-82.
 남호. “설교에 있어서 상상력의 역할.” 『신학과 실천』 16 (2008년/9월), 283-307.
 매간, J. 클린튼. 『새로운 시편여행』. 김영일 옮김. 서울: 은성, 2000.
 조재국. “한국교회 설교의 상징어 사용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11 (2006년/9월), 147-174.
 최진봉. “후기 새로운 설교학의 등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2 (2010년/2월), 175-208.

- Auffret, P. *La sagesse a bâti sa maison*. OBO 4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Bureggemann, Walter. "Response to James L. Mays, 'The Question of Context.'"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linton McCann, 29-41.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 Cole, Robert L. *The Shape and Message of Book III* (Psalms 73-89). JSOTSup 3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Eaton, J. H. *Kingship and the Psalms*. SBT 32. London: SCM, 1976.
- Garrett, Duane A. "Preaching from the Psalms and Proverbs," In *Preaching the Old Testament*, ed. Scott M. Gibson, 115-136. Grand Rapids, Mich.: Baker, 2006.
- Gillingham, S. "The Zion Tradition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In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Proceedings of the Oxford Old Testament Seminar*. ed. J. Day, 308-341. (New York: T&T Clark, 2005.
- Grant, Jamie A. "The Psalms and the King."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ed.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 101-118.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5.
- Gunkel, H. *Die Psalmen*. 4th ed. Göttinger Hand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 Hartenstein, Friedhelm. "'Schaffe mir Recht, JHWH!'" (Psalm 7,9), Zum Theologischen und Anthropologischen Profil der Teilkomposition Psalm 3-14."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ed. Erich Zenger, 229-258.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 Hossfeld, Frank-Lothar and Erich Zenger. *Psalms 2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5.
- Howard, David M., Jr. "Editorial Activity in the Psalter; A State-of-the-Field Survey."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linton McCann, 52-70.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_____. "Recent Trends in Psalms Study." In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es*. ed. D. W. Baker and B. T. Arnold, 329-368. Grand Rapids, Mich.: Baker, 1999.
- _____. "The Psalms and Current Study."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ed.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 23-40.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5.
- _____.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Biblical and Judaic Studies 5.

-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7.
- Kang, So-Ra. "Reading Book 1 of the Psalter through the **אָפּרַי** Sayings."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 Kim, Changdae. "The Blessing of Inheriting the Earth in Psalm 37: Its Theological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 Psalter." *Scripture and Interpretation* 1/2 (2007), 95-110.
- _____. "The Problem of Theodicy in Psalm 89 and Its Resolution in Books III and IV."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54 (2007), 5-27.
- Kselman, John S. "Sinai and Zion in Psalm 93." In *David and Zion: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J. J. M. Roberts*, ed. B. F. Batto and K. L. Roberts, 69-76.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4.
- Long, V. Philips. "Reading the Old Testament as Literature." In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 A Guide for Exegesis*, ed. Craig C. Broyles, 85-123. Grand Rapids, Mich.: Baker, 2001.
- Longman, Tremper, III. "Literary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 In *A Guide to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ed. Willem A. VanGemeren, 100-121.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9.
- Mays, James L. *Preaching and Teaching the Psalms*. Louisville, Kentucky: WJK, 2006.
- Miller, Patrick D. "Deuteronomy and Psalms: Evoking a Biblical Conversation." *JBL* 118 (1999), 3-18.
- _____.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linton McCann, 83-92.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 Mitchell, D. C.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Murphy, Roland E. "Reflections on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linton McCann, 21-28. Sheffield: JSOT Press, 1993.
- Sheppard, Gerald T. *Wisdom as a Hermeneutical Construct: A Study in the Sapientializing of the Old Testament*. BZAW 151. Berlin: de Gruyter, 1980.
- Terrien, Samuel. *The Elusive Presence: Toward a New Biblical Theology*. New York: Harper & Row, 1978.
- _____.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3.

- Wagner, J. Ross. "From the Heavens to the Heart: The Dynamics of Psalm 19 as Prayer."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1 (1999), 245-261.
- Waltke, Bruce K.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7.
- Welch, John W. ed. *Chiasmus in Antiquity: Structures, Analyses, Exegesis*. Hildesheim, Ger.: Gerstenberg Verlag, 1981.
- Whybray, R. N.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Willis, John T. "Psalm 1 - An Entity." *ZAW* 9 (1979), 381-401.
- Wilson, Gerald H.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ago: Scholars Press, 1985.
- _____.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 McCann, 72-8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_____. "The Structure of the Psalms."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ed.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 229-246.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5.
- Wilson, Lindsay. "On Psalms 103-106 as a Closure to Book IV of the Psalter."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ed. Erich Zenger, 755-766. Leuven, Belgium: Uitgeveru Peeters, 2010.
- Zenger, Erich.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45." *JSOT* 80 (1998), 77-102.

▪ Abstract ▪

A Study on How to Preach the Psalms

Changdae Kim

This study has explored a methodology which is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preacher should present a sermon on the psalms. More specifically,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the recent trend in the studies

of psalms, our attention has been drawn to how the book of Psalms were canonically shaped to constitute a coherent whole. On the macro level, the psalms in the book of Psalms were arranged to be a self-sustained whole. At the same time, on the micro level, individual psalms can be interpreted in their immediate literary contexts. Then, it has been proposed that preaching the Psalms should be presented in such a way that individual psalms should be interpreted in relation to their adjacent psalms and books of which they are part, and then to the entire Psalter.

There are a variety of scholarly opinions about the strategy according to which the final shape of the book of Psalms was formed. This study, among others, has made a case that the overarching message of the entire Psalter is intended to revolve around the urge to transform the human heart. In other words, the semantic focus of the Psalms is on the teaching that we should have the word (torah) of the Lord within our heart no matter what the situations, and then we are able to receive the blessing from Zion.

With these observations in mind, our study has proposed three steps for preaching the Psalms. First, the preacher should analyze the structure of a psalm and determine sermon topics reflecting the thematic flow of the psalm. Second, the sermon topics culled out from a psalm should be interpreted by attending to its adjacent psalms and books where they are part. Third, the preacher should view his messages in terms of how they are related to the overarching theme of the entire Psalter, that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heart.

Key Words

Psalms, Unity, Preaching, Methodology, Heart

논문접수일 : 2011년 8월 21일

논문수정일 : 2011년 8월 29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1년 9월 7일